

11

조선소 배관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성별	남	나이	49세	직종	배관 작업자	직업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홍○○(남, 49)은 1989년 D조선에 입사하여 배관작업 중 절단 및 사상 작업을 하던 중 1999년 8월 I대학교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홍○○은 39세 때인 1989년 11월 1일 D조선에 입사하여 1998년 11월 22일까지 약 9년 간 배관작업을 하다가, 1999년 8월 5일까지 약 8개월 간은 가공부 후판계에서 블록 조립용 철판을 용접하였다. 배관작업은 입고된 파이프류를 자동 가스 절단기로 절단하여 사상 및 용접 공정으로 넘기는 작업으로, 필요할 때에는 비일상적으로 녹(산화철)을 벗기는 작업도 하였다 한다. 1982년 1월 20일부터 D조선에 입사하기 직전까지 7년 9개월 간도 관련 업체에서 배관작업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절단작업과 취부작업을 병행하였지만 용접작업은 하지 않았다 한다. 한편 D조선에서 현재 사용하는 파이프에는 크롬 및 니켈이 함유되어 있지 않고, 철판에는 크롬이 0.03%, 니켈이 0.01% 함유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홍○○은 1999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된 기침으로 D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컴



퓨터단층사진에서 좌상엽 중심부의 폐암이 의심되어 I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상 좌상엽의 기관지 입구가 종양으로 거의 다 막혀 있고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나타났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편평세포 폐암(T3N2MX, Stage IIIa)으로 8월 23일 좌상엽절제술을 시행하고 9월 17일 퇴원한 후, 복직하여 외래 관찰을 하던 중 2000년 12월 6일부터 2001년 2월 7일까지 보조적 방사선요법을 받았다. 이후 2003년 2월 25일 흉부 컴퓨터단층사진에서 대동맥 주위로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어 실시한 경피세침흡인 조직검사에서 편평세포암으로 확인되어, 2003년 4월 9일부터 화학요법을 받다가 10월 22일 사망하였다. 의무기록에 1999년까지 30년 간 하루 1~2갑 씩 흡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결 론

홍○○의 폐암은

- ①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으로 확진되었는데,
- ② 폐암으로 진단받기 전 16년 9개월 간 수행한 절단 및 사상 작업은 폐암과 관련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 ③ 진단받기 직전 8개월 간 수행한 용접작업은 폐암의 잠재기를 고려할 때 폐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편,
- ④ 가장 강력한 폐암 원인인 흡연력이 많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